

정기룡 장군의 활약상과 주요 전적지

김 덕 현*

I. 국가 존망의 위기에 떨쳐 일어난 영웅 정기룡 장군

II. 정기룡 장군의 주요 전투

- | | |
|----------------------|------------------|
| 1. 거창-추풍령 전투 | 2. 임진년 진주성 부근 전투 |
| 3. 상주 용화동 전투와 상주성 탈환 | 4. 고령 용담천 전투 |
| 5. 보은 적암 전투 | 6. 삼가현 전투 |
| 7. 함양 사근역 전투 | 8. 사천 전투 |

III. 임진왜란의 영웅 정기룡 장군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I. 국가 존망의 위기에 떨쳐 일어난 영웅 정기룡 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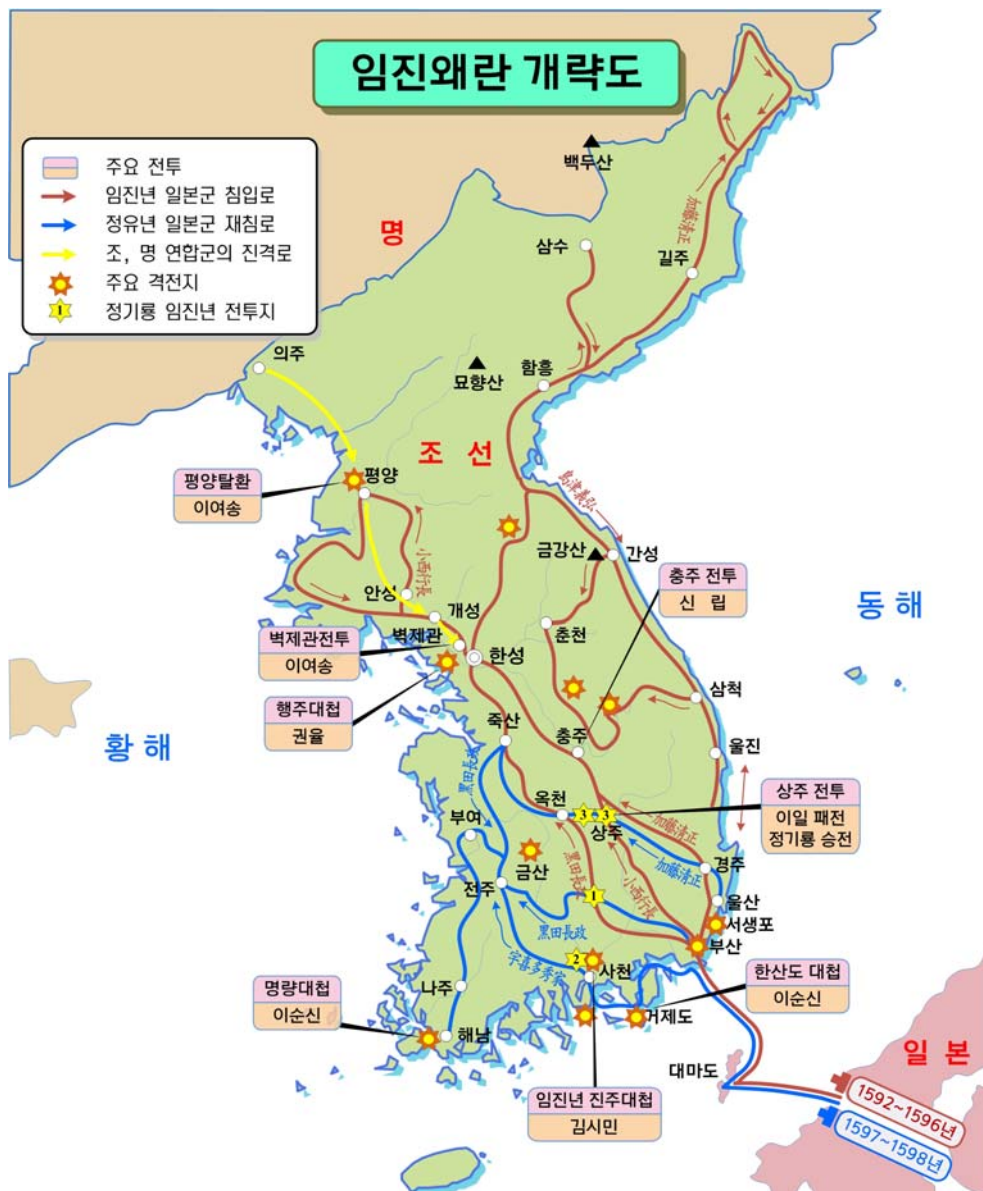
경상도 곤양, 지금 하동군 금남면에서 태어난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고통스러운 민족사가 배출시킨 영웅이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무장과 전쟁터에 관한 기록과 유적지를 조사 정비하여 ‘집단의 역사적 기억을 재현하는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가장 중요한 전투지였던 만큼 관련 장소를 기념관과 옛 전장으로 정비한다면,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기억을 체험토록 할 수 있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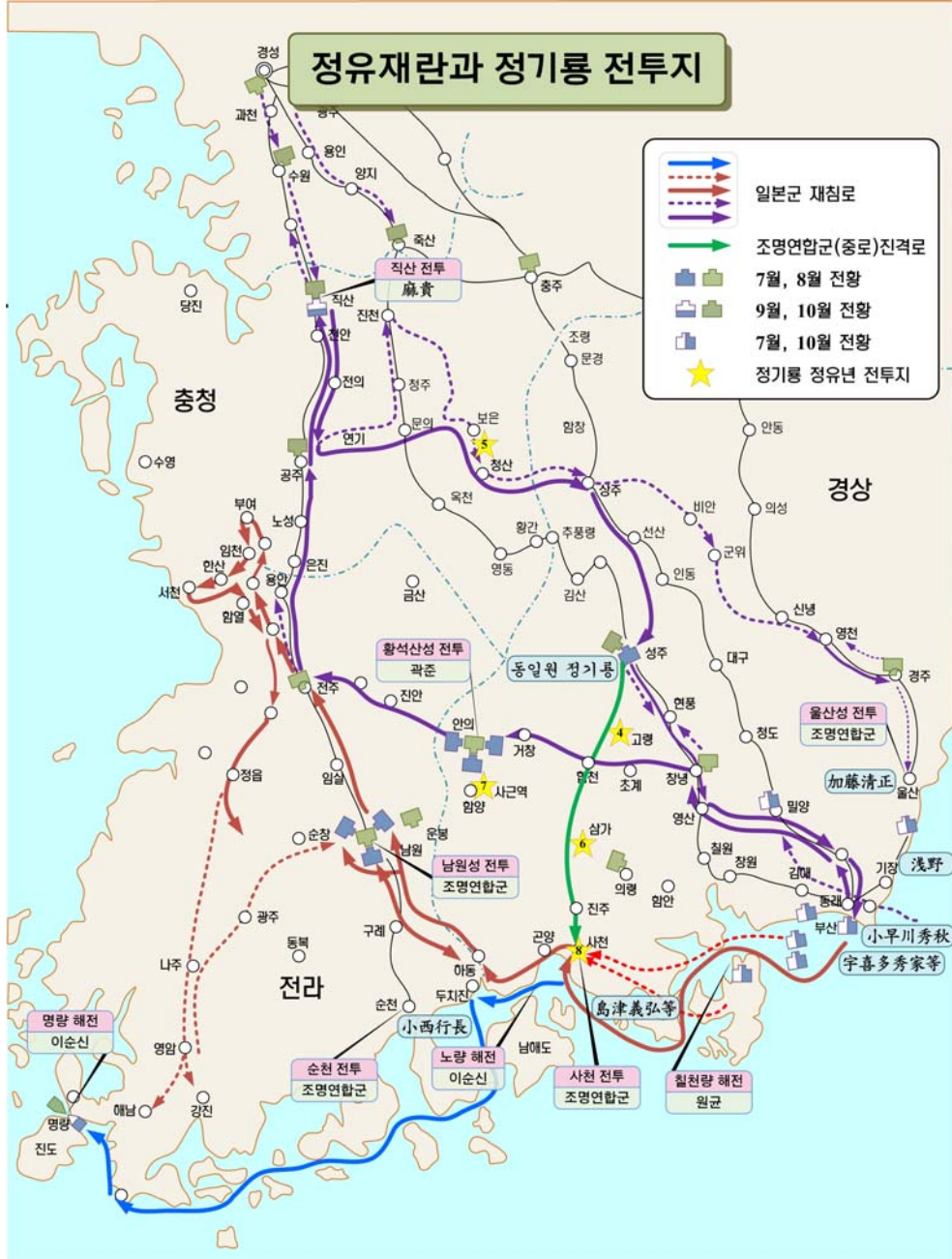
본 연구는 민족 역사의 기억을 재현시키는 현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일부를 문화콘텐츠로 재현함으로써, 정기룡 장군의 활동상을 의미 깊게 체험토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정기룡 장군이 빛나는 무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92년 임진왜란 시작부터 일본군이 철수하는 1598년의

* 경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교수

사천성 전투까지 7년 전쟁기간동안 장군이 참전한 주요 전투를 현장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1592년 4월 13일 늦은 봄날 오후 청명한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칠백여 척의 일본 병선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조선 침략전쟁 7년간은 조선 오백년을 통하여 최대의 참혹한 전란이었다.





장군은 강개 발분하여 칼을 가지고 우방어사 조경에게 따라가기를 자원하였다. 장군은 무도한 침략자를 물리쳐 백성과 조국 강토를 구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아 일어선 것이다.

II. 정기룡 장군의 주요 전투

1. 거창 추풍령 전투

“소수 기병의 돌격전으로 적을 참살하여 임란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사로잡힌 상관을 구해서 돌아옴으로써, 명성이 널리 알려지다.”

- 전투 일자 : 1592년 4월 23일 - 28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군) 경상우방어사 조경, 방어사 종사관 이수광, 조방장 양사준, 돌격장 정기룡; 군사는 수백 명 정도로 추정

(일본군) 서로군(3번대) 黒田長政, 毛利吉成, 大友吉統의 일부 병력, 군사는 수천 명 정도로 추정

- 전체 정세

흑전장정(黒田長政) 등 침략 일본군 3번 대는 4월 18일에 낙동강 하구 죽도¹⁾(김해시 죽림동)에 상륙하여 19일 김해성을 함락시키고 창원의 경상우병영을 점령하였다. 이어 흑전장정의 군대는 창녕 거창 김천을 거쳐 추풍령을 넘어려고 하였다.

한편 정기룡 장군이 종군하는 우방어사 조경은 새재를 지나며 일본군이 가까이 왔다는 정보를 접하고, 휘하 막료들에게 계책을 물었다. 정기룡 장군이 “적은 오래토록 준비하여 출동한 강한 군대로 대포와 조총을 장기로 하고 있으므로 대평한 세상에서 훈련되지 않은 우리 병졸로서는 정면으로 승부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은 보병을 중심으로 하므로 말을 잘 타는 기병을 뽑아 훈련시키고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사람을 가려 뽑아 돌격장으로 삼아, 적을 기다리고 있다가 뜻밖에 나아가 부딪친다면 적은 반드시 놀라 흩어지고 대

오가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이를 틈타 기병과 보졸이 합세하여 적을 공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기병을 활용한 기습 돌격 전술을 주장하였다. 주장 조경은 이를 좋은 계책이라 하고 곧 장군을 돌격장으로 임명하여 선봉으로 삼았다.

• 전투 경과

4월 23일 거창 신창²⁾(거창군 웅양면 노현리)에 도착한 일본군 흑전장정의 선봉 군사 5백여 명과 선봉돌격장 정기룡 장군이 거느린 불과 수십 명의 기병이 맞부딪쳤다. 많은 적을 보고 병사들이 두려워하였으나 장군은 혼자서 말을 몰아 적의 가운데를 종횡무진으로 돌격하여 수십 명을 베니 적이 흩어져 달아났다. 비로소 기병들이 장군을 따라 싸우면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싸워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 이 때 조선군 대부분이 일본군 대군의 위세에 밀려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장군이 홀로 외로운 수십 명의 병사로 강한 적병을 꺾었으니 임란 최초의 승리라 할만하다. 이 전투가 임진왜란에서 정기룡 장군



의 처음 전투이다. 승리한 이 전투는 주장 조정의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은 보지 못했고, 장군도 처음이라 적의 머리를 베어 전공을 보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논공(論功)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로 해서 비로소 장군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적 대군이 가까이 오자 조정의 군사는 적의 예봉을 피해 서서히 김천으로 물러나 진을 쳤다. 4월 28일 추풍역 근처에서 일본군의 전진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는데, 정기룡 장군은 돌격장으로 적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 손수 50여 명을 참살하였다. 이 때 적이 후진에 있던 조정의 군대를 급습하여 조정이 사로잡히게 되었다. 장군이 이를 알고 급히 말을 달려 적의 진중으로 침입하여 조정을 잡고 있는 적을 말위에서 베어 버리고 조정을 겨드랑이에 끼고 탈출하였다. 적은 크게 놀랐으나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 같아 위풍에 놀려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길을 열 수 밖에 없었다. 장군은 중상을 입은 조정을 직지사에서 요양하도록 하여 살아나게 하였다.

2. 임진년 진주성 부근 전투

“유격장으로 기용되어 진주성 외곽에서 일본군을 타격하여 진주성 대첩에 기여함으로써, 일약 상주 판관으로 발탁되어 본격적 활약이 시작되다.”

- 전투 일자 : 1592년 10월 2일 - 10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군) 수성군 : 진주목사 김시민, 판관 성수경, 곤양군수 이광악; 진주성 수성병력 3천8백 명; 외원군 : 감사 김성일, 의병장 곽재우 최강, 이달, 임계영 등 약 2천명; 한후장 정기룡, 조정형(약 3백 명), 복병장 정유경

(일본) 加藤光泰, 長岡(細川)忠興, 長谷川秀一の 병력 합계 2만명

- 전체 정세

정기룡 장군은 7월 지리산 속으로 피란한 노모를 찾아 만나 뵈었다. 어머니께서 별탈이 없는 것을 살펴보고 가족들의 안전한 피신을 당부한 다음, 장군은

그 다음날 곧 전선으로 나가기 위해 곤양군으로 들어가 곤양군수 이광악을 만났다. 초유사의 김성일의 진주성 방어 명령에 따라 진주로 가기 된 이광악은 장군을 곤양성 수성장으로 임명했다.

1592년 9월 들어서면서 많은 곳에서 의병들의 봉기가 활발해지고 일본군의 전세가 부진해지면서, 일본군은 각지에서 퇴각하는 일이 많아졌다. 경상우도의 일본군은 김해성에 모여 경상우도의 요충 진주성을 빼앗지 못하고서는 전라도로 침입할 수 없다고 하여 전 병력을 집중하여 진주성(목사성)을 공략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24일 김해성에 모였던 장곡천수일, 장강충흥, 목촌중현 등의 장수는 다른 소규모 병력을 모두 모은 2만의 군사로 진주로 향해 진군을 시작했다.

일본군 대병력이 진주성을 공략하기 위해 서쪽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유사 김성일을 호남 방면에 급사를 보내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의병장 최경회를 비롯한 호남 의병과 인근의 객재우, 최강, 이달 등 의병이 달려왔으며, 곤양군수 이광악을 비롯한 관군도 진주성을 구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한편 서진하는 일본군은 9월 25일 창원성을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26일에는 함안성을 점령하였다. 10월 3일부터는 진주성을 목표로 진군하여 4일에는 진주성 앞에 2만 일본군이 나타났다. 경상우병사 유송인은 막강한 대병력의 일본군과 접전을 계속하면서 퇴각하다가 진주성 아래까지 이르렀다. 진주목사 김시민에게 입성하여 함께 적과 싸울 것을 요청했지만, 김시민은 지휘체계의 혼란을 우려해서 성문을 열면 적이 침입한다는 이유로 입성을 거절하고 병사 유송인에게 성 밖에서 싸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경상우병사 유송인, 사천현감 정득열, 가배량 권관 주대청의 1천5백 조선군은 진주성 밖에서 2만 일본군과 분전하다가 10월 6일 모두 전투 중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진주목사 김시민이 지휘하는 진주수성군과 성 밖에서 지원하는 의병과 관군들은 일치 협력하여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치열한 공방전을 벌렸다. 진주성 함락에 실패하고 지친 일본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하였다.

• 전투 경과

초유사 김성일은 정기룡의 명성을 듣고 장군을 진주성 수성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유병별장(遊兵別將; 혹은 한후장(捍後將)에 임명하고,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들과 함께 진주성 외곽에서 수성을 지원토록 하였다. 진주성 공방기간 동안 일본군은 진주성 주변을 약탈하고 의병들의 외곽 포위를 무산시키기 위해 진주 인근 각지에 출몰하였다. 10월 9일 2천여 명의 일본군은 단성으로 진출하여 사방으로 나뉘어 분탕질을 하였는데, 정기룡 장군은 조경형(曹慶亨)과 함께 살천장(산청군 덕산면)으로 오는 적을 공격하여 쫓아버렸다.³⁾ 살천장은 호남 의병장 최경희가 김성일의 명을 받아 진주성 전투를 밖에서 응원하기 위해 저장해 둔 군량을 지키고 있던 곳이었다.⁴⁾ 정기룡 장군은 이들 의병장과 협력하여 진주성 전투를 성 밖에서 응원하여 임진년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것이다.

이에 경상우도 감사가 된 김성일은 “진주에 사는 훈련원봉사 정기룡이 날래고 용맹함이 아주 뛰어나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습니다. 아직 그의 서열이 직책에 맞지는 않으나 왜적을 토벌하는 것이 시급하므로”⁵⁾ 장군을 관직의 단계를 뛰어 넘어 상주의 (가)판관으로 임명하였다. 정기룡의 용맹과 지략에 탄복한 김성일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정기룡은 충의와 무용을 겸비한 사람이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나, 국가에 힘을 얻을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될지 모르겠구나.”⁶⁾하고 장군이 이 전쟁에서 나라와 백성에게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였다.



3. 상주 용화동 전투와 상주성 탈환

“일약 상주판관으로 등용되어 용화동에 피란한 상주 백성을 구하고, 야간 화공전술로 상주성을 탈환한 후 북천 전투에서 순국한 시체들을 매장하고 영령을 위로하다.”

- 전투 일자 : 1592년 11월 날짜 미상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 상주 가판관 정기룡, 병력 미상
(일본) 戸田勝隆 휘하 약 3천명 군사 중 일부

- 전체 정세

임진왜란 개전 초에 상주성이 함락되면서 조령 이하의 요충을 일본군이 모두 장악하고 있어 북쪽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 감사 김성일은 이를 근심하던 차에 믿을 만한 장수를 얻게 되자 장군에게 중요한 직책을 부여한 것이다. 임명 명령을 받은 장군을 밤낮을 쉬지 않고 상주에 이르렀으나, 성과 인군이 모두 적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장군은 일단 갑장산 속의 영수암에서 관병과 의병을 소집하여 상주고을의 관병장 김광복, 김각 등 의병장들과 회동하여 상주성 수복을 논의하였다.

일본군 대부대가 상주를 함락한 후 오래 머물며 노략질이 심하였고, 정경세 등 의병이 일어나 적과 싸웠으나 모두 패전하여 의기소침해 있었다. 상주성이 적에게 점령된 후 상주목사를 비롯한 상주 고을사람들은 상주 서쪽 70 리 되는 속리산과 백화산(백악산의 오기) 사이 용화동(龍華洞)에서 험준한 산세에 의지하여 피란하고 있었다.

- 전투 정세

장군은 상주에 도착하자 말자, 일본군이 용화동을 침범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갔다. 왜적의 선봉이 이미 선골자기에 들어와 백성들은 서로 부여안고 울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죽기를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장군은 급히 공격하면 적이 도망가면서 우리 백성들을 다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

여 적을 골짜기 밖으로 유인해내는 전법을 썼다. 장군은 말 위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쫓다고 놓고 또 숨었다가 적진에 갑자기 나타나는 등 기이한 승마기술을 보이니 적은 신기하게 여겨 장군을 사로잡으려 뒤쫓았다. 장군은 도망하는 척 하면서 적병을 용화동 밖 들판으로 유인해 낸 후 칼을 휘둘러 적병을 모두 참살하였다.

이 전투로 용화동 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이 한나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상주사람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 이후부터 장군은 혼자 말을 타고 나가 칼 한 자루로서 적을 베이니 적은 두려와 감히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고 비로소 상주에서 금산(김천)으로 가는 길이 개통되었다. 화령 현을 향해 달아나는 왜군을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가 석차를 설치하여 지나가는 왜군에 돌을 발사하니 적이 많이 죽고 또 장군이 왜병을 베어 수급 3백여 개를 경상감영으로 보냈다.

11월에 상주 성안에 진을 치고 있는 왜적이 아직 많으므로 장군은 ‘화공(火攻)’ 즉 불을 질러 공격하는 방법으로 상안의 적병을 물리치기로 했다. 상주성



탈환에 관해서는 다른 기록이 별로 없고 『매현실기』에 상주성 탈환작전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므로 인용한다.

“11월 23일에 상주의 늪은이와 약한 이까지 모두 징발하여 4백여 명을 얻게 되었다. 사람마다 관솔 햇불 10자루와 장나무 4·5개를 가져오게 하여 밤중에 장목에 죽 늘어세우고는 각기 서너 개의 햇불을 묶어서 빙고지(氷庫旨)로부터 사직단(社稷壇) 뒤에 까지 이르렀다. 또 성(城) 남쪽 향교의 뒤 봉우리에 마른 쉼나무를 많이 쌓아두었으며 또 서·남·북 삼문(三門)에 화공(火攻)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는 각기 장수(將帥)를 정했으니 서문의 장수는 김세빈(金世賓)이고 남문의 장수는 정개룡(鄭介龍)이고 북문의 장수는 여대세(余代世)였으며 다만 동문에는 방비가 없었으니 대개 적병의 도망가는 길을 열어 주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화공(火攻)의 준비가 이미 끝나게 되자 공은 관군과 늪은이와 약한 이를 합친 1천여 명을 서정(西亭)에서 진을 치도록 하고 선발된 병력 1백여 명을 출동시켜 사람마다 삼릉정(三稜挺: 죄인을 때리는 세모진 방망이)을 가지고서 성 동쪽의 화개봉(花開峯) 아래에 숨어 있도록 하였다. 또 늪은이와 약한 이를 나누어 성 북쪽 빙촌(氷村)의 아래 위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배치가 정해지자 서정의 군중(軍中)에서 나팔을 불어 신호를 하니 여러 곳에서 햇불의 불빛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환하기가 대낮과 같았다. 장군은 손에 기다란 햇불을 쥐고서 이리 저리 말을 달려 적진에 거침없이 나아가니 왜적의 진치고 있는 여막이 가는 곳마다 불이 나서 불꽃연기가 하늘까지 뻗히고 소리가 사나운 바람과 맹렬한 천둥처럼 거세었다. 고함지르는 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오니 산이 진동하고 성이 뒤집히듯 하였다. 이런 일이 뜻밖에 일어나니 적군은 놀라 두려워하여 허둥대면서 다만 제 살길만 찾고 있었다. 오직 동문에는 불길도 없고 또한 군중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적병은 과연 모두 동문으로부터 나와서 도망하였으나 화개봉 아래에 숨어있는 군대가 일어나서 적병을 맞아 몽둥이를 휘둘러 마구 치니 적병이 혹은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혹은 몽둥이에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였다. 구차스럽게 살아서 남은 적병들은 수풀 속에 도망해 숨어서 눈을 깔고서 얼어서 죽은 것이 서로 시체를 베고 있었다. 넘어진 시체가 삼단처럼 쓰러져 있어 이룩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 다만 적병의 머리 3백여 개만 베어서 경상감영에 승리를 보고하였다. 감사가 이 사실을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였다.

상주 북원은 왜란 초 순변사 이일(李鎰) 장군이 왜군과 싸워 패전한 장소이다. 이 때 판관 원길을 비롯하여 전 교리 박지(朴簋), 전 교리 윤섭(尹聶), 전 좌랑 이경류(李慶流)이 함께 죽었으며, 호장(戶長) 박걸(朴傑)도 역시 죽었

다. 이들과 많은 사졸들의 원통한 혼들이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해골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공이 상주성을 수복한 후에 맨 먼저 시체를 거두어 매장해 주었다.”

정기룡 장군의 상주성 탈환작전은 방어가 어려운 읍성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의 불안을 이용하여 야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횃불을 들게 하여 적을 혼란에 빠트린 다음, 말 탄 군사로 돌격하고 불을 질러 공격하면서, 또 한쪽 성문은 열어 두어 퇴로를 주되 북병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는 야간화공 전술이다. 이러한 화공 공성 작전은 관군과 의병 그리고 백성들이 위대한 장수의 지휘 하에 일치 협력하여 고을을 탈환한 사례로서 정기룡 장군의 지략과 용맹이 가장 잘 드러난 전투이다. 그러나 상주성 탈환 전투에 대한 기록이 『매현실기』 외에는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아쉽다.

12월에는 의병과 연합하여 당교(唐橋)에서 왜적을 섬멸하였다. 당시 함창(咸昌)과 문경(聞慶)의 경계지점인 당교는 왜적이 점거하여 백성들을 살상 약탈하고 있었다. 상주 북쪽 대승산(大乘山; 문경 산북면)은 험준하고 궁벽하여 주변 일대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당교에서 패전한 후 도주하는 적의 패잔병이 모두 대승산 쪽으로 가다가 장군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모두 섬멸시켰다.

상주성 밖 여러 곳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을 장군의 휘하 이희춘(李希春), 김천남(金天男), 김세빈(金世賓), 황치원(黃致遠), 김사종(金士宗)등의 맹장들이 요충에서 기다리다가 왜병이 움직이기만 하면 공격하여 수백 개의 수급을 전취하니, 적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주하였다.

이처럼 장군의 주도 하에 관군과 의병과 연합작전을 구축하여 왜군 토벌을 전개한 결과 비로소 예천지방과 금산(金山) 간의 통로가 개방되었다. 장군이 상주 일대의 적군을 모두 평정하니 멀고 가까운 지방에서 상주로 모여와서 생명을 보전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그 중에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죽기를 원하는 장정들이 있어 이들 한 사람이 적군 백 명을 당해낼 수 있었다. 이들을 감사군(敢死軍)이라고 부르고 장군을 ‘감사군대장’이란 칭호로 일컫게 되었다. 다음해인 1593년 계사년 11월 30일에 장군은 정식 상주목사로 승진하고 ‘감사군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정승이 상주목사 정기룡을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토포



사로 겸무시키도록 임금에게 아뢰었다. 조령(鳥嶺)아래의 상주는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큰 길 가운데 있는 큰 고을이라, 정기룡으로 하여금 토포사 관직에 임명하여 병졸을 모집하여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자고 하였다. 장군은 적은 군졸을 거느리고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요충이 되는 이 지역을 우뚝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군의 진지를 동남방(東南方)의 가장 큰 장새(障塞=要塞)라고 말하였다.

4. 고령 용담천 전투

“정유재란에서 전라도로 침입하는 일본군을 고령 용담천에서 만나, 유인 매복 전술로 섬멸하고 적장을 사로잡다.”

- 전투일자 : 1597년 8월 15일 - 16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 영의정 유성룡, 체찰사 이원익, 도원수 권율

상주목사 겸 토왜(討倭) 대장 정기룡,

척후장 이희춘, 척후장 황치원

별장 이수일, 충청병사 이시언

경상도 28개 군 병력 2천(추산)

(일본) 의령방면에서 낙동강을 따라 북상한 鍋島直茂, 勝茂 휘하의 병력(1만2천 명)의 일부

• 전체 정세

강화를 위한 화의가 파탄되자, 1597년 1월 14일 제1군 가동청정의 군대가 서생포에 상륙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군 재침 부대 8개 군단 11만여 명이 6백여 척의 함선으로 바다를 건너와 남해안 왜성에 다시 들어왔다. 재침에 나선 일본군은 임진년과는 달리 서울 이남의 4개도를 점령한 후 강화를 꾀한다는 전략으로 육지에서는 동과 서로 바다에서는 전라도 해안을 따라 북진을 기도하였다. 일본 수군은 7월 14-16일 거제도 칠천량에서 이순신을 대신한 원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을 궤멸시켰다.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적은 육로를 좌, 우 군으로 나누어 북상하였다. 8월 16일 일본군은 고령에서는 정기룡 장군에게 패했으나, 8월 15일 황석산성과 8월 16일 남원성을 각각 함락시킨 적 좌우 군은 8월 25일 무혈로 전주성을 점령하고 합류하여 북상하였다.

• 전투 정세

일본군 우군은 모리수원이 대장이 되고 가동청정을 선봉장으로 하였다. 의령 삼가를 거쳐 성주방면으로 북상하는 군대는 일본 우군 와도직무, 승무의 군사 1만 명이였다. 이들은 육로로 혹은 배로 낙동강을 타고 올라와 8월 상순에 고령현까지 진출하였다.

왜적은 성주와 고령 사이에 목寨(木寨)를 치고 진영을 수축하니 진막과 기치가 들에 가득하고 징소리, 북소리, 인마의 고함소리가 하늘 가득 찼다. 이 때 정기룡 장군은 상주목사 겸 감사군 대장으로 경상감사의 명에 따라 상주진관

소속 9개 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주목사 이수일이 수상장으로 있는 금오산성에 들어갔다. 이때 가족도 함께 산성이 들어갔다.

왜적이 공공연하게 전라도의 왜군과 좌 우군이 합쳐서 장차 경성을 침범할 것이라 하니 온 나라가 불안에 떨었다. 체찰사 이원익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주에 내려 와 도원수 권율, 방어사 곽재우와 더불어 왜적을 물리칠 계책을 논의하자 여러 사람이 모두 정기룡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다. 특히 명나라 장수 모국기(茅國器)는 공이 싸움에서 이길 상이 있다고 예언하였다. 체찰사 이원익이 곧 장군을 대장으로 기용할 뜻을 말하고 경상우도 28개 군의 병사 전부를 지휘하여 적을 격퇴하도록 명하였다.

수성장 이수일이 장군을 성에서 내보내지 않으려 하였으나, 장군은 국가에서 자신을 재능을 알고 기용함에 감격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서하고 모부인에게 하직한 후 전장으로 말을 재촉하였다.

15일 아침에 고령 대마평에서 체찰사 이원익을 만나서 적을 격퇴하라는 명을 받았다. 경상도 28개 고을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고령현 녹가전에 진을 쳤다. 밤에 척후를 내보내 왜군 복병을 관죽전에서 토벌하여 적병 백여 명을 베고 돌아 왔다.

16일 새벽에 정기룡 정군은 전 병력을 출동시켜 용담천(龍潭川: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지금의 안림천)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였다. 양군이 활과 총을 쏘며 진퇴를 거듭하다가, 장군은 결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을 유인하기로 하고 이동현 쪽 길목에 붉은 옷과 붉은 삿갓을 쓴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장군의 군대는 싸우다가 패전하여 달아나는 것처럼 하자 적이 전군을 동원하여 추격하여 이동현 고개 아래 다다르자 곧 깃발을 되돌리고 북을 울려 반격을 가했다. 공이 앞장서 왜군을 향해 진격하니 적의 장수 하나가 붉은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긴 칼을 휘두르며 공과 대적하였다. 공은 겨우 한번 접전으로 적장을 마상에서 적장을 잡아채 사로잡았다. 곧 묶어서 깃발에 매다니 장수가 사로잡힌 적은 전의를 잃고 당황하였다. 아군 측이 돌진을 시작하고 매복하고 있던 홍의군사들이 앞뒤 좌우로 함께 공격하였다. 닥치는 대로 찢어 죽이고 만나는 대로 목을 베어 적은 거의 전멸상태에 이르렀다. 싸움이 끝난 후 적의 머리를 베인 것을 모아 놓은 것이 큰 짐채만 한 크기로 여섯 무더기나 되었다고



한다.

『매헌실기』에는 이 전투에서 수 만 명의 적병 중에서 죽음을 면한 자가 5백 명도 채 되지 않았으며 부상한 적병도 절반이 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 왜군 우익 군의 목표가 성주를 통해 북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주를 점령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주력이 고령전투와 같은 날 가까운 황석 산성에서 격전을 치루고 있었다. 鍋島直茂의 군사도 황석산성 공격에 참가하고 있었다. 한편 적의 좌익군은 이날 남원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따라서 고령전투에 참가한 적의 병력은 수만이 아니라, 전라도로 진출하려는 적의 후미에 있던 1, 2천의 병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⁸⁾

이 일전으로 고령 성중·합천·초계·의령 등 다섯 고을에 주둔하고 있던 적이 모두 놀라 도망하고 수 백리 지역이 안정되었다. 8월 17일에 공이 고령현 관아에 좌정하여 활쏘기를 개최하니 인근의 선비와 서민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모두 나와 사례하기를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적의 밥이 될 번 하였습니다. 하였다.



체찰사 이원익은 승전보에 접하고, 조정에 상신하여 정기룡 장군을 절충장군으로 올렸다. 또 7월 15일 칠천량 해전 대패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는 김응서를 대신하여 공을 경상우병사에 임시로 임명하였다. 체찰사 이원익이 승전을 임금께 보고하였다. 장군은 9월 22일에 절충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직첩을 받고 나라의 은혜를 갚기에 노력하여 죽은 후에야 그만둘 것을 기약하였다. 장군은 창원 경상우병영이 적군의 점령 하에 있으므로 성주 수룡동에 진영을 열었다. 9월에 성주로 진격하다가 직산에서 명나라 군대에 패전하여 퇴각하는 왜군의 잔당을 충청도 영동에서 맞아 이들을 거의 다 격파하였다.

5. 보은 적암 전투

“보은현 적암에서 퇴각하는 가등청정의 대군을 안개 속에서 만나, 대진하여 적을 막음으로써 그 사이에 상주 백성을 피란시키고, 다시 퇴로를 공격하다.”

- 전투 일자 : 1597년 9월 20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 경상우병사 정기룡 병력 약 4백 명

(일본) 우군 주장 가등청정 병력 약 1만 명

- 전체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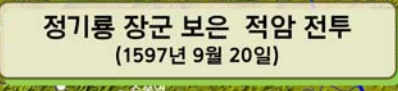
9월 6일 경기도 직산에서 흑전장정이 이끄는 일본군이 명나라 군대에 대패하고, 금구에서도 조선군에게 패배하자, 일본군은 할 수 없이 울산, 사천, 순천 등 해안의 근거지로 퇴각하는 길로 들어섰다.

- 전투 정세

9월 20일 경에 정기룡 장군은 퇴각하는 적 우군 가등청정의 대군을 보은현에서 상주로 넘어가는 적암(보은군 미로면 적암천)에서 만났다.⁹⁾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여 가까운 거리도 분별할 수 없으나 대군의 수레와 말울음소리만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었는데, 4백여 명에 불과한 소수의 우리 군사는 안개가 걷히자 들에 가득 찬 1만여 적병을 보자 모두 두려움에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장군은 태연하게 관기 평야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홀로 적으로부터 약 3-4백보 앞에 나아가 말을 세우고 큰 활을 당겨 적을 쏘아 연달아 꺼꾸러뜨렸다. 적병이 공이 매우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대오가 정제하여 엄중한 모습으로 대진함을 보고 큰 병력의 방비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여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대치한 것이 2일이나 되었다. 이 사이에 장군은 급히 상주에 소식을 전해서 상주에 모여 있는 수십만 피란민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가등청정의 왜군 일만여 명에 달하고 아군은 사백 명에 불과하여 피아간의 병력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장군은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서서히 군사를 풀어 왜군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다. 장군은 적의 후미를 화령을 넘어 비안현(의성군 비안면)까지 쫓아가 뒤에 처진 적병을 섬멸하였다.

1597년(정유년) 12월부터 시작된 울산성 전투가 다음해 정월 성 함락을 앞두고 일본 구원군이 당도하자 4일부터 조명연합군은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 이때 정기룡 장군은 선봉장으로 활약하여 많은 공을 세웠으며, 퇴각 시에는 마지막까지 용마를 몰아 검을 휘둘러 좌우의 적을 베어 적의 포위를 뚫어 길을 열



6. 삼가현 전투

“명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삼가현 울원(신원면)에서 살육 약탈을 자행하는 일
본군을 평지로 유인하여 매복 작전으로 쳐부수고, 납치된 백성을 구하다.”

- 전투 일자 : 1598년(무술년, 선조 32년, 만력 25년, 경장 3년)
- 관련 인물과 병력
 - (조선) 경상우병사 정기룡, 선봉장 한명련, 우후 박대수, 별장 백흥제 ,
 - (명나라) 총병 해생(解生),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 합계 약 3천명
 - (일본) 도진의홍(島津義弘) 휘하 병력 약 2천명

• 전체 정세

반격에 나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육지에서는 직산전투, 해상에서는 노량 전투에서 적을 참패시켜 북진 야망을 좌절시켰다. 이에 왜적은 황급히 퇴각하여 울산, 사천, 순천 등 해안 근거지에서 왜성을 쌓고 농성하면서 소규모의 군사를 출격시켜 인근 지역을 약탈하고 있었다. 경상우도에 거점을 둔 도진의홍은 사천 선진에 신성을 수축하고 주진으로 하였다. 사천에 거점을 둔 도진의홍의 군사는 지리산 인근 군현에 수시로 출몰하면서 다른 어떤 일본군 장수보다도 조선백성들을 가장 폭악한 약탈과 살상, 백성 납치를 자행하였다. 장군은 일본군을 직접 추격하거나 부장들을 보내 적들을 소탕하였다.

2월에 명나라 동정군은 제독 어왜총병관(禦倭總兵官) 동일원과 유정이 각각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왔으며, 도독 어왜총병관 진린이 절강수군 5백 척을 거느리고 당진현에 상륙하였다.

2월에 정기룡 장군은 성주 수룡동 병영에서 왜적에게 보다 접근하기 위하여 고령현에 나아가 진을 치고 별장을 보내거나 자신이 직접 나아가 인근을 분탕질 하는 왜적을 토벌하였다. 명나라 부총병 해생(解生)이 대구(大邱)에서 합천으로 본진(本陣)을 옮겨왔다.

• 전투정세

3월 24일 정기룡 장군이 왜적이 삼가현 울원에 침입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첩보에 장수 이만성을 보내 적정을 정탐하도록 하였다. 삼가현 울원(신원면 수원리)의 산간지대에서 적군 2천여 명이 온갖 약탈과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정기룡 장군은 합천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장수 해생(解生)을 설득하여 연합군 3000여 병력을 거느리고 왜적을 유인해 내어 공격하기로 하였다. 미리 선봉장(先鋒將) 한명련(韓明璉)과 우후(虞侯) 박대수(朴大秀)로 하여금 삼가현의 읍내에 군사를 매복시켜 두었다. 정오에 장군은 해생과 함께 울원으로 곧장 들어갔으나, 때마침 해가 저물어 합천군의 심묘리(心妙里; 합천군 묘산면)에서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닭이 울 때에 적군이 있는 곳에 농부로 가장한 활 잘 쏘는 궁수 30여명을 적진에 접근하여 불을 지르고 화살로 공격하였다. 적은 일시

에 혼란에 빠졌다가 공격군이 소수임을 알고 반격해 오자, 장군의 군사들은 오색 군기를 휘날리며 곧장 쳐들어가니 적군은 이미 삼가현의 대평(大坪; 합천군



병목면)을 향하여 도망 가버렸다. 적군을 뒤쫓아 삼가현 남쪽 서원(書院)앞에까지 이르러 많은 적군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적군이 산위로 올라가서 저항하였다. 산은 험준하고 길은 막혀버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명나라 군사 2명과 말 6마리가 탄환에 맞아 즉시 죽었고 우리 군사 1명도 또 적병의 칼을 맞아서 죽으니 적병을 쫓아가서 잡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공이 이미 계획한대로 짐짓 군사를 퇴각시켜 적군을 유인(誘引)하니 적군이 평지에 내려와서 삼가현의 서문밖에 진(陣)을 치고 있었다. 이 때 장군은 잠복해 기다리던 한명련과 박대수의 군사와 합세하여 좌·우 양쪽에서 들이쳐서 포위 공격하였다.

적병의 수급 73개를 베어 이를 모두 명나라 군대에 주었다. 이 전투의 승전으로 적에게 잡혀있던 남녀 100여명이 구출되었고 삼가 지방은 평온을 되찾았다.

7. 함양 사근역 전투

“함양 사근역을 점령한 적을 물리치고, 명나라 황제의 명령으로 전사한 명장을 대신하여 총병관으로 임명되어 명군을 지휘하다.”

- 전투일시 : 1598년 4월 20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 경상우병사 정기룡

(명나라) 부총병 이녕(李寧), 파총 이낙; 조명연합군 약2천명

(일본) 도진의홍의 일부 병력

- 전체 정세

사천을 본진으로 하여 웅크리고 있는 도진의홍의 군사는 수시로 경상우도 각 지역과 지리산일대, 그리고 거창까지 출몰하여 살상과 약탈, 납치를 자행하고 있었다. 경략은 부총병 이녕(李寧)에게 명하여 거창방면으로 출정토록 하였다. 상주에서 남하한 이녕의 군사와 삼가에서 북상한 경상우병사 정기룡 장군

의 군사는 거창에서 합류하여 올라오는 적을 섬멸하기로 약속했다.

• 전투 정세

함양군(咸陽郡)의 사근역(沙斤驛:지금의 수동면소재)이 적군에게 점거 당하였다는 정보를 접하고 장군은 명나라 부총병 이녕과 함께 연합하여 왜적을 공격했다. 명장 이녕이 가볍게 무장한 기병을 거느리고 최선두에서 적을 격멸하면서 적진 깊숙히 들어가자 좌우에 매복하고 있던 적병이 일시에 조총을 난사하며 반격하여 이녕이 중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그러나 정기룡 장군은 다른 방면에서 적을 무수히 베고 전진해오자 일본군은 퇴각하였다. 이 전투는 명나라 군대가 적병의 수급 1백여 개를 베었으며 우리 군대가 적병의 수급 2백여 개를 베었던 승리였다. 그러나 명나라 부총병 이녕이 적병의 탄환을 맞아 전사했기 때문에 그의 남은 병졸 7백여 명이 모두가 공에게 예속되기를 원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청하였다. 명나라 경리(經理)양호(楊鎬) 이하의 장수들이 모두 장군을



용맹하며 지략 있는 장군으로 크게 평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유를 열거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장군으로써 죽은 이녕의 관직을 대신 임명해 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특별히 허가하였다. 이에 장군이 명나라 조정(朝廷)의 어왜총병관(禦倭總兵官)으로 임명되어 명나라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경리 양호와 제독 마귀는 표패(標牌)로서 장군에게 상을 주었으며, 사세용은 시 2장을 지어 주었다.

8. 사천 전투

“사천 왜성에서 귀환을 준비하는 일본군을 공격한 조명연합군은 적의 반격으로 후퇴하였으나, 장군은 조선군 대장으로서 적을 맹공하고 병력 손실 없이 퇴각하다.”

- 전투 일시 : 1598년(무술) 9월 17일 -10월 1일

- 관련 인물과 병력

(조선) 경상우병사 정기룡, 병력 2천2백 명

(명나라) 증로제독 동일원(董一元), 부총병 장방, 유격장, 팽신고, 모국기, 유경장 노득공; 병력 2만6천8백 명

(일본) 도진의홍(島津義弘; 시마스 요시히로; 沈安道) 병력 약8천 명

- 전체 정세

1598년 8월 17일에 豊臣秀吉이 죽었다. 유언으로 조선에 출병한 군대의 철군을 명하였다. 조선군 측에서도 일본군이 철수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 차렸다.

이 해에 새로 중국에서 건너온 명나라 증원군으로 조명 연합군은 진용을 다시 갖추고, 9월 동 중 서와 수로 등 사로(四路)로 나누어 진격하여 왜적을 소탕하는 사로병진 수륙연합 작전을 펴기로 하였다. 명장 동일원(董一元)의 증로군은 9월 18일에 성주를 출발하여 진주로 향했고, 명 제독 마귀의 서로군은 9월 22일 부총병 해생을 선봉으로 경주에서 울산으로 남하하여 제2차 울산전투를 시작하였으며, 서로군은 제독 유정이 전주를 거쳐 9월 19일부터 왜교성(순천)을 공략하는 전투를 시작하였다. 한편 수로 제독 진린은 통제사 이순신과

같이 바다 쪽에서 소서행장의 왜교성을 공략하여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소서행장 군을 압박했다.

중로제독(中路提督) 명(明將) 동일원(董一元)은 병력 36,700여명을 거느리고 도진의홍의 사천(泗川) 신성(新城)¹¹⁾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 성(城)은 왜장(倭將) 도진의홍(島津義弘)이 오랫동안 사천(泗川)에 왜병의 본진을 설치하고 병력과 포로가 된 백성을 동원하여 쌓은 방어진지로서 동쪽만이 육지에 연결되고 삼면은 바다에 면하여 선박이 성 아래에 직접 접안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要塞)였다.

사천성 전투는 정기룡 장군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직함으로 중로의 조선군 최고 지휘관으로 참전한 임진왜란 최대의 전투이자 마지막 전투였다. 장군은 경기, 황해, 경상우도의 전 병력 2천3백 명을 동원하고 명나라 병마 3천을 함께 지휘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제독의 지휘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장군의 지략과 용맹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웠다.

• 전투 정세

9월에 정기룡 장군은 적군의 정세를 형탐한 것을 조정에 보고하기를, 적군이 곧 군대를 거두어 돌아가는 의론을 하고 있는데, 명나라 장수들은 시일을 끌고 있으니 매우 근심이 된다고 하였다. 또 장군은 성주에 주둔하고 있는 명 제독 동일원을 날마다 찾아가 진군할 것을 요청하였다.

9월 18일 드디어 조명연합군은 가야산 아래 야영지를 출발하여 19일에는 삼가를 거쳐 진주로 향했다. 19일에는 남강 건너편을 정탐하고, 명 제독 동일원은 주력군을 거느리고 진주성에 입성하였다. 남강 남쪽 망진채를 지키던 적장 사내구겸(寺山久兼)은 진주성에 입성한 조명연합군의 위세에 놀라 공포에 떨면서 이 상황을 선진리 사천왜성의 본진에 있는 도진의홍(島津義弘)에게 급히 보고하였다. 도진의홍은 곧 명령을 내려 망진, 영춘, 곤양의 수비 병력을 모두 철수시켜 본진으로 집결토록 하였다.

정기룡 장군은 선봉이 되어 명군과 함께 20일에는 망진채를, 22일에는 영선채를, 23일에는 곤양채를 공격하여 불태웠다. 28일에는 선봉장이 되어 보병 2천과 기병 1천의 군사를 이끌고 사천읍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29일 치열한 백

병전을 벌려 성을 점령하였다. 이 전투에서 적 수성장 산상충실은 몸에 30여 발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은 채로 부하들과 함께 선진리 본진으로 도망갔다. 본진의 도진의홍은 “구원군을 출진시키면 추격하는 조명연합군이 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킬 것이므로, 견고하게 성을 지켜 적이 승리를 타서 성을 가볍게 공격하기를 기다려 일거에 대세를 결정짓는 것이 상책이다.” 하였다.

10월 1일 아침 6시부터 벌어진 전투는 8시경에 조명연합군은 성 밖에서 전열을 다듬고 성을 포위공격하기 시작했다. 장군은 명의 유격장 팽신고와 함께 선봉에서서 포를 쏘고 큰 막대기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고 성안으로 진입하려고 했다. 이 때 일본군은 일제히 총포를 발사하면서 반격하고, 마침 팽신고의 명나라 군대 진중에서 불랑기포가 오발하게 되어 진중에서 연쇄폭발을 일으켜 대혼란이 일어났다. 혼란을 놓치지 않고 배수진을 치고 성을 지키던 일본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출격하여 명군을 역습하니 명나라 군대는 지휘체계를 상실하고 한꺼번에 무너지고 도망해서 진주까지 왔다.

선봉에 섰던 장군은 명나라 후군 조송훈과 함께 군대를 정돈하여 삼가로 물러나 지켰다. 명나라 군사들의 사망자는 수천에서 최대 1만 명까지 추산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정기룡 장군의 조선군사는 한 사람의 손실도 없고 오히려 적의 목 50여를 베고 식량까지 운반하며 철군하였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명나라 군서를 참수한 것이 3만8천7백여 명이라고 기록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참전한 조명연합군의 숫자보다도 많은 것으로 전공을 과장 보고한 것이다.¹²⁾ 일본군은 사천 왜성 옆에 참수한 시체를 묻고 큰 무덤을 만들어 ‘경관(京觀)’으로 이름 붙이고, 참수한 수급의 코를 베어 일본으로 보냈다.

사천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정기룡 장군은 선진리 사천성의 일본군이 성안에 우물이 없어 크게 걱정한다는 정보를 알고 동일원 제독에게 건의하기를, “위급한 경우의 짐승은 힘이 센 상대에게도 덤벼들고 궁지에 몰린 적은 죽기를 각오하고 반항하기 때문에 꺾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면에서 포위 공격한다면 적군은 반드시 생사를 돌아보지 않고 싸워서 죽을 곳에서 도망갈 길을 찾아낼 것이니 그 한 방면을 틈어서 그들의 달아날 길을 열어주는 것만 못할 것이요. 그렇게 하면 열흘이 지나지 않아서 물길이 말라버려 저절로 물러나

도망갈 형세가 있을 것이니 만약 그들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려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서 들이친다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대병력의 위세를 믿고 적을 가볍게 본 동일원 제독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적을 쳐부순 뒤에 아침식사를 하리라.” 하면서 무모한 공격을 명령하였다가 패배한 것이다.

• 사로병진의 좌절과 종전

10월 1일 사천성을 공격한 중로군의 패전 소식은 동시에 벌어지고 있던 울산, 순천 왜교성 전투에 영향을 주었다. 사천성 패배에 실망한 동로군의 마귀는 울산성 공략을 포기하고 10월 6일 병력을 거두어 영천으로 퇴각하였다. 유정의 서로군은 육군과 수군의 협력이 부진한데 따른 의기소침과 사천성에서의 패배 소식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 또 소서행장의 철수를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10월 7일 퇴각하였다. 이리하여 순천 왜교성에 남은 소서행장의 마지막 귀국 퇴로를 차단하려는 이순신과 진린의 조명 연합군 함대 5백 척과 이를 구출하려는 도진의홍 등 일본군 함대 5백 척이 부딪친 최후 해전이 11월 19일 노량 바다에서 벌어진 것이다. 노량 해전의 틈을 타서 소서행장의 군사는 봉쇄를 빠져나와 남해섬 남쪽 끝을 돌아 부산에서 다른 일본군대와 합류하였다. 일본군은 11월 24일과 26일에 부산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사천성 전투는 정기룡장군이 참전한 전투 가운데 가장 큰 전투였으며, 또 일본군과의 마지막 전투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정기룡 장군은 조선군의 최고 지휘관이었지만 조명연합군의 일원으로 명나라 제독의 지휘를 받는 한 사람의 장수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장군은 이 전투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으나 장군의 전략 전술을 쓰이지 못해서 전투의 승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60여 회의 전투를 치렀지만 자신이 지휘한 전투에서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그의 지략과 용맹을 십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기룡장군이 마지막 전투를 최고 지휘관으로 지휘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군의 전술이 채택되었다면 사천 전투의 승패는 바뀌지 않았을까? 장군이 제의한 전술이 채택되어 사천전투에서 사천의 도진의홍 군이 결정적 패



배를 당했다면, 11월 노량해전은 달랐을 것이며, 이순신장군이 소서행장의 탈출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임진왜란 전체 결과도 크게 바뀌어졌을 것이다. 정기룡 장군은 용장 덕장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에게 7년간의 전쟁 끝까지 대전투를 지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Ⅲ. 임진왜란의 영웅 정기룡 장군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한 국가 한 민족의 존망이 걸린 비상한 시대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수습하여 공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다.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지만 민중들이 의병으로 봉기하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 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다. 정기룡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임란을 극복하는데 가장 공이 큰 몇 사람의 무장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지방자치와 지역축제 문화 활성화에 따라 상주시에서 상주성 탈환을

재현하는 축제와 장군의 사당인 충의사에서 탄생일에 다례를 올리는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은 정기룡 장군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다. 하동군이 향토인물 정기룡 장군을 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기억하고 그 전공을 기리는 역사적 장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정기룡 장군에 대한 최초의 학술발표회인 본 행사에서 정기룡 장군의 주요 전투를 기록에 의거하여 재현함으로써 앞으로 정기룡장군을 현창하는 다양한 사업에 기본 자료를 제공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위대한 공훈을 세운 정기룡 장군의 임진왜란 활동상에 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놀랐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나마 전하는 자료가 그의 폭 넓은 활약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고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절감하였다. 연구에서 활용한 주 자료는 정기룡 장군의 후손이 수집한 자료로 이루어진 『梅軒實記』이며, 이를 왕조실록 자료와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종합적인 임진왜란 정세에 관한 연구서로서 이형석의 『壬辰戰亂史』와 일본 측 자료인 일본군 구참모본부 편 『朝鮮の役』을 주로 참고하여 정기룡 장군의 활동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또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의 전력이 너무나도 열세여서 잘 훈련되고 조총과 같은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단독으로 정규전으로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이다.¹³⁾ 정말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일본군의 야욕이 무리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제외하면 큰 승리의 대부분이 진주성·행주산성 전투와 같은 수성전이거나 평양성 직산 전투와 같은 명나라 군대가 주도한 전투였다. 조선군이 주도한 전투의 대부분은 이순신의 해전을 제외하면 소규모의 전투였고 유격전 기습전이 많았다.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의 일본군 신속한 진격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러한 전세가 임진년 하반기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민중의 자각에 바탕을 두고 일어난 의병과 정기룡 장군과 같은 뛰어난 지장 용장이 있어 우리 산천에 맞는 소규모 유격전 전략 전술이 성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규모 유격전 기습전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정기룡 장군이다. 장

군은 개전 초 막강한 적군에 대적하는 전술을 묻는 주장에게 기병을 이용한 기습 돌격전을 통해 적진을 교란시킨 후, 매복한 보병과 기병이 합세하여 반격하는 전술을 주장하였다. 기습 돌격과 유인 매복전술은 임진왜란의 영웅 정기룡의 면모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전술이며, 스스로 준마를 타고 좌충우돌하면서 적을 닥치는 대로 참살하는 장군을 따라 싸우면 모두 승리하는 연전연승의 비결이었다. 지략과 용맹을 갖추었으나 아직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장군을 진주성 전투를 배치하고 외곽에서 지휘한 경상우도 감사 김성일이 주목하였다. 김성일은 장군의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얘기하면서 일약 경상도의 대읍이자 요충인 상주의 (가)판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정기룡은 충의와 무용을 겸비한 사람이다. 앞일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국가에 힘을 얻을 것은 바로 이 사람이 될지 모르겠구나.”¹⁴⁾

장군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기습 돌격과 유인매복 전술을 주로 하였다. 상주 전투에서는 야간 화공전을 더하여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쫓아냈으며, 화령현에서는 석차를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보은전투에서 장군은 불과 오백 명의 병력으로 가동청정의 일만 병력과 2일간이나 대치하는 위장전술을 침착하게 수행하는 탁월한 용맹과 지략을 보여주었다. 장군의 지장으로서 면모는 적을 공격할 때 항상 퇴로를 열어주면서 적으로 하여금 전투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기습 돌격전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정기룡 장군은 탁월한 장군이었을 뿐 아니라, 겸손하고 백성을 아끼는 목민관이었다. 다수의 무장들이 용맹하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서투른 경우가 많았다. 영의정 유성룡은 정기룡을 평하기를 문무를 모두 잘하기 때문에 목사와 판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임금께 주청하였다.

“기룡은 젊고 재략(才略)이 있는가 하면 또 목민(牧民)에도 능합니다. 중국 장수를 접대할 적에도 성의를 다하여 친히 물을 베어 오기까지 했습니다. 상주(尙州)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판관(判官)을 목사(牧使)로 올리면 다시 판관은 낼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이만한 사람은 요사이 보기 드뭅니다.”¹⁵⁾

정기룡 장군에 대한 평가는 조선 측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명나라 장군 마귀(麻貴)는 선조 임금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조선의 훌륭한 장수에 대하여 이

순신, 정기룡의 순으로 아래와 같이 거론하였던 것이다.

“저도 들었는데 이순신(李舜臣)이 아니었던들 중국 군대가 작은 승리를 얻는 것도 어려웠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조선의 여러 장수 가운데 누가 양장(良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순신(李舜臣)·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連)·권율(權慄) 등이 제일이라고 여깁니다.¹⁶⁾

전쟁이 끝난 후 명나라 유격 모국기(茅國器)는 선조 임금과 담론하는 자리에서 아래처럼 정기룡 장군을 육군의 대표적 장수로 평가하였다.

“상께서 해상에 대해 진념하시어 병선을 많이 만드신다면 적이 염탐하고서 반드시 방비(防備)가 완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의 수로 총병(水路總兵) 이운룡(李雲龍)과 육로 총병(陸路總兵) 정기룡(鄭起龍)은 두 훌륭한 장수로 몸을 돌보지 않고 나아가 싸우는 것은 이 두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¹⁷⁾

정기룡 장군은 유명한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 그는 낮은 지위에서 몸을 일으켜 무관으로서 최고의 지위인 병사, 오위도총관, 삼도수군통제사의 지위에 올랐다. 1592년 임란 초 거창-추풍령 전투에서 선봉돌격장으로, 그리고 진주성 전투에서는 한후장으로 맹활약을 하여, 감사 김성일의 인정을 받아 일약 상주(가)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상주에서는 용화동에 숨은 백성을 살리고 상주성을 탈환하여 새재 아래 길을 회복시킴으로써 영의정 유성룡의 천거를 받아 상주 목사 겸 감사군 대장의 지위에 올랐다. 1597년 고령 용담천 전투에서 경상우도 조선군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을 유인 섬멸하고, 이어 보은 적암에서 가동청적의 대군을 물리치자 체찰사 이원익의 장계로 절충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의 지위에 올랐다. 1598년 사근성 전투에서 전사한 명나라 장군을 대신하여 명나라 황제로부터 어왜총병관의 지위를 얻는 특별한 장군이 되었다. 장군은 크고 작은 싸움 60여 회에서 모두 적은 병력을 거느리고 많은 병력의 적군을 공격하여 한 번도 용맹한 기세가 꺾이고 패전한 적이 없었다. 7년간의 전쟁에서 말을 달려 대포 총탄을 무릅쓰고 칼과 창 사이를 다녔으나 적은 장군에게 작은 상처도 입히지 못했으니, 참으로 임진왜란을 맞아 하늘이 장군을 내려 우리 국토와 백성을 구하도록 했다고 할만하다. 학봉 김성일과, 서애 유성룡, 오리 이원익, 권율 장군 등 전쟁을 지휘한 명신들이 공을 인정하여 중책을 맡긴 것도

그들이 하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을 비롯하여 훌륭한 무공을 세운 장군들이 불운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기룡 장군은 전쟁이 끝나자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되고 44세에 오위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되었다. 56세에는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 되었으며, 61세에 수군 통제영에서 순직하니 임금이 조회를 폐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문으로 조문하였다. 장군은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관후한 덕성으로 시대와 불화를 만들지 않아 관운도 함께 한 사람이었다.

요약하자면, 정기룡 장군은 낮은 무관에서부터 몸을 일으켜 민족 최대의 환란 속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바친 임진왜란의 영웅이다. 용기로서 적병을 죽이고 지략으로서 적을 물리치며 은혜로서 백성을 살렸으니, 국가에서는 높은 지위와 명예로서 보답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7년간 경상우도가 전쟁의 주 무대가 되었음에도 그나마 보전된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기룡 장군의 활약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장군이 태어난 곳이 지금의 경남 하동의 금오산 아래이다. 경상도의 가장 아래 쪽 산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영웅이 경상우도 전역에 그 무공을 떨쳤으니, 참으로 영험한 땅이 시대를 구하는 인물을 낸 ‘地靈人傑’이라 하겠다.

[註]

- 1) 죽도성은 사적 51호로 지정되어 있다.
- 2) 『慶尙道邑誌』 거창군 지도에 신창이 표시되어 있다.
- 3) 『鶴峰集』 제3권 ‘馳啓晉州守城勝捷狀’.
- 4) 『文殊誌』 鶴峰先生龍蛇事史蹟, 『鶴峰逸稿』 부록 제2권
- 5) “晉州訓練奉事鄭起龍 驍勇絶倫屢立戰功 職次雖不相當 討倭危急 故假差借..” - 『鶴峰集』 속집 권3 ‘馳啓道內假差人狀’
- 6) 『매헌실기』, 임진년 7월 조
- 7) 함천군 가야산 야로현서 흘러내려오는 가야천의 하류이다. 고령현 남 5리 사혜평에서 가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 『경상도읍지』 고령현 산천조
- 8) 이형석, 1874, 『壬辰戰亂史』, 중권, 1002쪽
- 9) 『매헌실기』에는 9월 5일이라고 하나, 직산전투가 9월 6-7일에 있는 후, 퇴각하는 일본군이므로 『임진왜란사』 1039쪽의 의 9월 20일이 정확하다 할 것이다.
- 10)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鄭經世)가 치계하기를, “동쪽 바다에서 패전한 후에 신이 성주(星州)에 도착하여 중국 장수가 먼저 도망친 죄를 우리나라의 군사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제 왕 안찰(王按察)이 정기룡(鄭起龍)에게 ‘네가 어찌하여 먼저 달아났는가?’고 했다 합니다. 기룡은 맨 먼저 성(城)에 올라갔고 맨 뒤에 나온 자인데, 도리어 이러한 누명을 받으니 몹시 해괴합니다. 기룡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비록 대

단촐은 일인 듯하나 이로 인하여 혹 실정 밖의 터무니없는 말로 이보다 더 큰 사건을 조작할 것이니 매우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 선조 105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10월 23일(을해) 3번째 기사

- 11) 東洋倉 또는 通洋倉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사천시 선진리성이다.
- 12) 이상훈, “정유재란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 13) 명나라가 재침한 일본군을 섬멸하고자 동정군 4만4천여 명을 3로로 대군을 편성할 때, 선조실록 정유년(1597) 11월 10일 기사에 따르면, 동 중 서 삼로에 배치된 조선군은 도합 1만2천3백명에 불과하였다. 경상우도 절도사 정기룡이 지휘하는 중로군은 자체 병력 1천명, 황해도 2천명, 경상도 방어사 고언백의 군사 3백 명 모두 3천3백 명이였다. 『매현실기』에는 사천성 공략을 앞두고 정기룡이 왕에게 올린 보고에는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병력이 본디 5백 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14) 『매현실기』, 임진년 7월 조
- 15) 선조 44권, 26년(1593 계사 / 명 만력(萬曆) 21년) 11월 5일(을묘) 1번째 기사
- 16) 선조 103권, 31년(1598 무술 / 명 만력(萬曆) 26년) 8월 15일(무진) 1번째 기사
- 17) 선조 118권, 32년(1599 기해 / 명 만력(萬曆) 27년) 10월 2일(무인) 4번째 기사

[참고문헌]

- 『慶尙道邑誌』, 『朝鮮王朝實錄』, 『鶴峰全集』
- 일본 舊參謀本部(編), 1965, 『朝鮮의 役 -日本の 戰史5』, 徳間書店
- 김준형, 1995, “진주 주변에서의 왜적 방어와 의병활동,” 『경남문화연구』 제 17호
- 엄기표, 1977(제3판), 『壬辰亂의 猛虎 -忠毅公鄭起龍將軍實記』, 세음사
-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역주), 1999, 『국역梅軒實記』, 상주시
- 이상훈, “정유재란시 사천지역의 전투와 조명군총의 조성”
- 李炯錫, 1974, 『壬辰戰亂史』,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 정을병, 1978, 『名將鄭起龍』
- 趙慶男, 『亂中雜錄』, 민족문화추진회 역, 『大東野乘』에 수록
- 홍량호, 『鄭起龍傳』, 『海東名將傳』, 『耳溪集』